

# 고흥 김, 인도네시아 식탁 오른다

## 가쓰오부시 결합한 김자반 인기 10월까지 780만달러 규모 납품

고흥군이 최근 마른김 생산업체인 어업회사법인 희망김에서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수출을 본격화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지난 3월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계정단과 자바슈퍼푸드 간 체결한 고흥 김 수출 500만 달러 수출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100만 달러(한화 14억5,000만원) 규모의 고흥 김 60톤이 인도네시아로 수

출됐다.

고흥 김을 수입한 자바슈퍼푸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를 둔 농수산물 식품가공 기업으로 고흥 김을 활용해 김스낵, 김자반 등을 생산하고 현지 대형 쇼핑몰 등에 납품할 예정이다.

고흥 김과 인도네시아 잡지에서 추출한 가쓰오부시가 결합한 김자반은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고흥군은 협약 체결 이후,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자바슈퍼푸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이번 물량까지 140톤, 270만 달러가 수출됐으며, 오는 10월 말까지는

260톤, 510만 달러가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협약 금액인 500만 달러를 초과해, 총 780만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은 인도네시아는 고흥 김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중요한 해외 시장으로 인식, 수출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상차식은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을 타겟으로 한 고흥 김의 본격적인 수출 시작을 의미한다”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고흥 김의 우수성을 알려 동남아시아 전역과 중동, 인도까지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고흥=진중연 기자



고흥군이 최근 마른김 생산업체인 어업회사법인 희망김에서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수출을 본격화했다. 고흥군 제공

#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가정의 달 경품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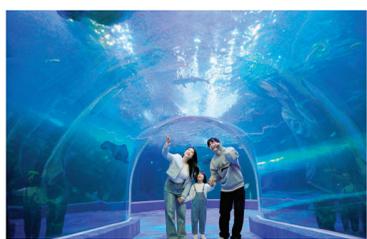
## 순천·광양시민 40% 현장 할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5월 가정의 달 맞아 ‘온가족 추구미 총족해’를 주제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 나들이를 계획한 가족들의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 마케팅을 기획해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연휴 이후에 방문하는 고객들 대상으로도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 다자녀 할인 최대 30%, 여수·순천·광양 지역민 40% 현장 할인이 적용된다.

해당 할인 혜택은 관련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매표소에서 인증



아쿠아플라넷 여수를 방문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제공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족 패키지를 판매한다. 어린이날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벨루가, 인어공주 인형 등 4종을 입장권 패키지

로 판매한다. 베스트 메뉴로만 구성된 가족 식사 패키지를 최대 25% 할인 판매 중이다.

할인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연휴 이후에도 코닥캐리어와 로얄베이비 브랜드 경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 수조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쿠아플라넷 여수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쿠아플라넷 여수 김기문 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기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코닥캐리어, 로얄베이비 등 브랜드와 협업해 다양한 제품을 고객들이 만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완도군, 암샘김밥과 전복 신메뉴 4종 출시

완도군은 분식 브랜드 암샘김밥과 손잡고 완도산 전복을 활용한 프리미엄 김밥과 식사 메뉴 4종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완도군 대표 수산물인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로코노미(Loconomy)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암샘김밥은 지난해 ‘전남 올라잇 세계 김밥 축제 페스티벌’에서 전남도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완도군과 전복 소비 촉진 실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상생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달 전국 매장서 출시하는 신메뉴는 100% 완도 전복만을 사용하고 암샘의 연구·개발 기술을 접목시켜 대중적인 한 끼 식사로 선보인다.

완도 전복에 특제 소스가 버무려진 ‘전복 비빔밥’, 매콤한 전복 소스에 쫄깃한 전복을 넣은 ‘전복 통 계란말이 김밥’, 감칠맛나는 ‘전복 계살 볶음밥’, ‘전복 물 쫄면’ 등이다.

암샘김밥은 현재 전국 24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로코노미 협업은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민간 브랜드와의 지속



적이고 전략적인 상생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외식기업과의 신메뉴 개발 등 맞춤형 사업을 통해 전복과 해조류 등 완도 수산물이 국내의 소비자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여수시, 계획공모 관광개발사업 120억 확보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체부 계획공모에 ‘빛섬’ 사업으로 공모해 총사업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여수시는 ‘빛섬’ 사업을 포함해 2029년까지 5년간 고유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독창적인 야간 관광 브랜드로 확립할 방침이다.

빛섬 사업은 2026여수세계유산박람회 종료 후 남겨진 주제관 등 박람회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담고 있다. 전남도 자체평가와 문체부 서면·현장 심사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빛섬’ 사업은 ‘빛이 들려주는 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섬과 바다에 담긴 전설과 해양 생태를 빛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재해석한 사

업이다. 일루미네이션, 미디어아트 등 감성 야간 관광 콘텐츠를 구현해 기존 여수밤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여수를 대표하는 섬을 영상 조명으로 표현한 ‘테마 섬’ △섬별 특색을 연출한 테마 로드 △‘여수 빛섬길’ △프로젝션 맵핑, 몰입형 영상, 인터랙티브 체험시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 ‘미디어바다’ 등이 있다.

여수시는 올해 국비 1억원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낮과 밤 모두 머무르고 싶은 도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담양군, 16일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담양군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군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표본 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

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여부를 포함해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담양군의 건강 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보건정책 수립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담양=정일남 기자

## 클릭! 고흥속으로



## 담양경찰, 범죄예방 홍보·경찰체험 부스 운영

담양경찰서는 담양 대나무축제에 참여해 실종 및 범죄 예방 홍보와 경찰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청소년에게는 ‘빠담빠담’ 행사를 기획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안전강화벽’ 만들기 △지문 사전등록 안내 △경찰 제복 체험 △포돌이·포순이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범죄 예방을 홍보했다.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은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형 자치경찰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 광양농협, 수도작 계약재배 농가 첫 모내기

광양농협은 최근 세종간척지에서 수도작 계약재배농가의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허순구 조합장은 직접 이앙기를 운전하며 첫 모를 심고, 현장을 찾은 농업인들과 함께 풍년을 기원했다.

광양농협은 올해 세종간척지 일대에 친환경 벼 29ha, 고품질 벼 24ha, 찰벼·보리 7ha 등 총 60ha 규모의 수도작 계약재배 단지를 조성했다. 고품질 광양쌀 생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과 기술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허순구 조합장은 “올해는 꼭 풍년이 들어 농업인들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 장흥 안양농협,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

장흥 안양농협은 농가주부모임과 공동으로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반찬나눔 봉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원로 조합원 및 소외 계층분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만든 반찬은 안양농협을 통해 조합원과 소외 계층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백연심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중 안양농협 조합장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고령의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